

2021 일본 한국도서 특별전 <우정을 잇다> 전시 도서 리스트

Nb	제목	저자	출판사	분류	출판일 (한국)	책소개
1	떠도는 땅	김승	은행나무	소설	2020. 04. 27	읽는 이의 마음에 자국을 남기는 작가 김승. 그녀의 집요함과 세심함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힘과 서사의 밀도는 독자와 평론가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많은 에너지와 감정 소모를 필요로 하는 작품을 써내며 심포 하나, 말줄임표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는 그녀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써내려간 문학의 자리엔 숭고함이 남는다. 일본군 위안부, 입양아, 철거민 등 소외된 약자와 뿌리 들린 사람들을 보듬어왔던 그녀가 이번 작품에선 '디아스포라'를 노래한다. <떠도는 땅>은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이 화물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다. 화물칸이라는 열악한 공간을 배경으로 열차에 실린 사람들의 목소리, 특히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 디아스포라적 운명을 이야기로 확장시킨 이 소설은 슬픔과 그리움이 고인 시간을 걸어온 고려인들의 비극적 삶, 그리고 오랜 시간 '뿌리내림'을 갈망했던 그들의 역사를 집전하고 섬세하게 그려낸다.
2	타오르는 마음	이두운	은행나무	소설	2020. 07. 02	이두운의 첫 소설 '그아이는 이제 없어(원제 '시스터, 문예춘추)가 일본에 소개될때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흐름'((요미우리신문, 미야베 미유키)이란 제목을 달고 소개되었다. 그의 두 번째 장편 <타오르는 마음>은 '연쇄살인'으로 먹고사는 마을이 있다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살인사건'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어두운 심성들이 모여 마을에 기괴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마을 사람들의 과거가 한데 뭉쳐 우리 사회의 어두운 심연을 타격한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절벽으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 사회의 은유이자 돈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을 재화로 만들 때, 개인의 육체는 대상화되고, 불행과 가난은 전시되며 인간은 죽어서도 죽음에 이르지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소설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이상하고 기괴한 마을에 점점 마음이 빼앗길 때쯤, 살인을 계획한 사람과 살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관한 비밀이 한 점의 주저 없이 일사천리로 파헤쳐진다.
3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창비	소설	2019. 10. 25	장류진 작가의 첫번째 소설집, '일의 기쁨과 슬픔'은 '장작과비평' 웹사이트에 공개된 직후 SNS를 통해 입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해당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가 많았고 누적 조회수까지 40만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소설가 정이현은 이 책을 두고 "오늘의 한국사회를 설명해줄 타임캡슐을 만든다면 넣지 않을 수 없는 책"(추천사)이라 평했다. 여기 실린 8편의 소설은 주로 이상심대 젊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각자의 애환이 담긴 직장생활의 디테일이 대단히 실감나게 그려졌음은 표제작에 대한 '현직' 독자들의 열렬한 호응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거니와 작가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반짝이는 우리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아름답게 담아낸다. 눈물짓되 침장하지 않고, 힘에 부치지만 자기 나름의 지혜로 잘 버텨나가며, 어쨌게든 삶의 기쁜 장면을 만들어낼 줄 아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이 책 곳곳에 스며 있다.
4	내가 되는 꿈	최진영	현대문학	소설	2021. 02. 25	<내가 되는 꿈>은 존재를 지우고 싶을 만큼 상처 깊은 한 여성이 유년 시절부터 함께 지냈던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외면했던 과거와 마주보고 나라는 존재, 나와 얽힌 관계에 대한 진정한 할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최진영 작가는 지금까지 여덟 권의 장편소설과 두 권의 소설집을 발표하며 섬세한 감수성과 거침없는 서사, 빛나는 문장으로 한국 문단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상실을 경험한 여성, 학대 가정에서 자란 소녀, 비정규직 청년 등 시대적 어두운 현실을 직시할 줄 주저하지 않던 그는 이번 책을 통해 내면에 묻어두고 외면했던 자신의 상처의 근원들과 조우하는 이야기를 선보인다.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도하고 경험한 후회로 점철된 '어른'들의 삶을 되짚어보며, 그저 어른이 아닌,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애쓰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가슴 아프게 펼쳐놓는다.
5	얼마나 닮았는가	김보영	아작	소설	2020. 10. 31	미국 최대출판사 하퍼콜린스에서 한국 SF 작가로는 처음으로 출간 예정인 소설! 과학(寡作)으로 소문난 김보영 작가가 10년간 쓴 주목같은 중단편 모음집, <엄마는 초능력이 있어>, <빨간 두건 아가씨>, <니엔이 오는 날> 등과 함께 여러 권의 단편 선집에 불꽃이 흩날려있던 값진 단편까지 한 권의 책으로 모았다. 문목화 소설가는 추천사를 통해 김보영은 단편 하나에 아주 많은 심상과 다양한 감정을 배치해 (두려움 정도로) 조화롭게 엮어내는 작가인데, 그 때문인지 장편보다 중단편을 더 밀도 높게 쓰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팬들에게 "가장 SF다운 SF를 쓰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6	다른 세계에서	이현석	자음과모음	소설	2021. 02. 08	이현석의 첫 소설집. 작가는 가장 동시대적인 윤리와 사회문제를 소설로 풀어내며 정교하고 치밀한 질문을 던지는 리얼리스트다. 다양한 인물들의 다채롭고 이질적인 목소리와 시선을 교차하며 서사를 구축하면서 끝없이 고민해봐야 하는 현실 사안의 세부와 인간 본연의 모순적인 지점까지도 감각하게 한다. 이현석의 소설은 현재의 세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치열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며, 그럼으로써 망각을 저지하며 더 나은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려는 삶의 문학이다.
7	연년세세	황정은	창비	소설	2020. 09. 18	<연년세세(年年歲歲)>는 작가가 오랫동안 품어온 주제를 펼친 역작이다. 지난해 문예지를 통해 발표한 두편의 소설 「파묘破墓」와 「하고 싶은 말」과 함께 실린 「무명無名」과 「다가오는 것들」은 이번 단행본을 통해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작품이다. 황정은은 '작가의 말'에서 "사는 동안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자주 만났고, 순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고 전한바, <연년세세(年年歲歲)>에 실린 소설 네편은 '1946년생 순자씨' 이순일과 그의 두 딸 한영진 한세진의 이야기가 큰 줄기를 이루며 이어진다. 어머니와 자매의 지난 삶과 현재의 일상을 통해 지금, 여기의 한국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8	시선으로부터	정세랑	문학동네	소설	2020. 06. 05	한국과 미국에 나뉘어 살고 있는 한 가족이 단 한 번뿐인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떠난다는 다소 엉뚱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시선으로부터>,는, 현대사의 비극과 이 시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세계의 부조리를 관통하며 나아간다. 미술가이자 작가이며 시대를 앞서간 어른이었던 심시선. 그녀가 두 번의 결혼으로 만들어낸 이 독특한 가계의 구성원들은 하와이에서 그녀를 기리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해나간다. 정세랑이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은 무엇보다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시선으로부터>,는 한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돌봄과 따스한 시선으로부터 비롯된 작품이다. 데뷔 10년,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내면서도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녀가, 사랑스러운 소설을 쓰는 작가에서 이제는 사랑을 행사하는 작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9	환한 숨	조해진	문학과 지성사	소설	2021.03.09	소외된 이들의 자리를 따뜻한 언어로 위로하는 조해진의 소설집 <환한 숨> 그간 조해진은 사회에서 소외된 이주민, 입양인, 노동자 빈민 등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도 가장 어두운 자리에 머무는 이들의 삶에 색채를 더하는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번 책에서도 가려지고 외면된 자리에 놓인 이들, 이를테면 기밀 곳 하나 없이 암 투병 중인 중년 여성이나 수은종속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일해야 했던 미성년 노동자들,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청춘을 허비하다 지쳐버린 남녀의 삶 등에 펜스를 가져다댄다. 작가는 이들의 삶이 결코 여기서 끝난 것만은 아니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감각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개개인의 이야기에 온기를 더한다.
10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허블	소설	2019.06.24	바이오헌서를 만드는 과학도였던 작가는, 이제 소설을 쓴다.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상상의 세계를 특유의 분위기로 손에 잡힐 듯 그려내며, 정상과 비정상, 성공과 실패,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끊임없이 질문해온 소설가 김초엽. 2017년, '관내분실'로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부문 대상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으로 가작을 동시에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소설가 배영훈, 김보영으로부터 "작가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하고, 작품을 통해 그 질문을 다른 사람들의 코앞에까지 내밀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을 거친 결과, 작가와 작품은 스스로 행하게 아름다워진다. 이 글 '관내분실'처럼" "슬픔에 좌절하지 않고, 어쩌면 영원히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그 의지를 끝까지 관찰하려 한다는 데서 이 작품('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감동을 준다"는 평을 이끌어냈다.
11	붕대감기	윤이형	작가정신	소설	2020.01.14	이 책은 '우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휘몰아치는 복잡하고 내밀한 감정들을 침착한 문제의식과 섬세한 문제로 묘사하며 작가가 현재 몰두하는 '여성 서사'라는 화두를 가장 적실하게 그려 보인 작품 가운데 하나다. 소설에서는 계층, 학력, 나이, 직업 등이 모두 다른 다양한 여성들의 개별적인 서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불법촬영 동영상 피해자였던 친구를 보고도 도움을 주지 못했던 미용사 지현, 영화 홍보기획사에 다니는 위강남이자 의식불명에 빠진 아들 서균을 둔 은정, 그런 서균과 한방인 딸을 가진 엄마 진경, 진경의 절친한 친구이자 출판기획자인 세연 등 바쁜타지를 하듯 연결되는 이들 각자의 사연은 개인의 상처에서 나아가 사각지대에 자리한 우리 사회의 한부매까지가 닿는다.
12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문학동네	소설	2020.07.01	이번 소설은 청춘, 사랑, 역사, 개인이라는 그간의 김연수 소설의 핵심 키워드를 모두 아우르는 작품으로,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변한 세상 앞에 선 시인 '기행'의 삶을 그려낸다. 1930~40년대에 시인으로 이름을 알리다가 전쟁 후 북에서 당의 이념에 맞는 시를 쓰라는 요구를 받으며 러시아문학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는 모습에서 기행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시인 '백석'을 모델로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행은 원하는 대로 시를 쓸 수 없는 상황, "희망과 꿈 없이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를 붙들려 하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시를 향한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더라도, 개인을 내리누르는 현실의 무게가 압도적이라면 그 마음은 끝내 좌절되고야 마는 걸까. 속수무책의 현실 앞에서 작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마음,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일곱 해의 마지막>은 이러한 물음을 안고 한 명의 시인이자 작가로서 어두운 한 시절을 통과해온 끝에 마침내 김연수가 내놓은 대답처럼 보인다.
13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정용준	민음사	소설	2020.06.26	열네 살 소년이 언어 교정원에 다니며 언어적, 심리적 장애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말을 더듬는 인물은 그간 정용준 소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지만 이번 소설에서는 그 내면 풍경을 열네 살 소년의 목소리로 들려줌으로써 언어적 결핍에서 비롯된 고통과 고투의 과정을 한층 집진하게 보여 준다. 언어를 입 밖으로 원활하게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재난과도 같은 상황으로 인해 소년은 가족은 물론이고 학교, 친구 등 자신이 속한 세계로부터 배제된 채 유령처럼 걸돈다. 스스로를 깊이 미워하면서, 또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향한 치미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은 소년이 언어 교정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짓고 마음속에 길을 내며 세상과 연결되는 자민만의 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타인의 삶에 대한 다정한 이해를 경유해 자신의 삶에 대한 뜨거운 긍정으로 이어지는 길고도 짧은 여정이다.
14	숨	한유주	문학실현실	소설	2020.11.05	한유주의 작품 세계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한국문학의 미학적 무게추를 감당하는 하나의 선명하고 독특한 아이콘이라 할 만하다. 소설 '숨'에서는 반복적으로 '죽음'과 '개'가 등장한다. 죽음의 개는 개의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개는 왜 짓는가? 삶의 근원적 허구성과 무의미를 깊이 응시해온 한유주가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 괴담 시대에 그 '교묘하게 재단된' 이야기가 자체의 진실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자 "이야기를 거부하면서도 어떻게 소설이 구축될 수 있는지를, 그때 드러나는 소설의 다른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소설" (한국일보문학상 선정의 말 중에서)로, 나아가 "거짓 기억과의 싸움, 끝없이 이야기를 지우는 소설 쓰기" (김현문학패 선정의 말 중에서)라는 찬사를 받아오며 말 그대로 그만의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한국문학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왔다.
15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나무열의자	소설	2021.04.20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편의점을 무대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속내와 희로애락을 따뜻하고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덩치가 곧 같은 이 사내는 알코올성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궁뎅이 과연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웬걸,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
16	기린의 심장	이상욱	교유서가	소설	2021.04.19	표제작 「기린의 심장」을 포함해 총 9편의 단편이 실린 이 소설집은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불행에 관해 이야기한다. 인간을 먹는 외계 종족의 침략, 자식의 죽음, 성격적 결함, 산업 재해, 직장 내 따돌림 등이다. 지구를 점령한 외계인에 의해 감미로운 식재료로 전락한 지구인의 이야기를 담은 「어느 시인의 죽음」, 육체를 동기화시키는 기술이 발전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타인을 위해 육체를 트레인이 내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비극을 다룬 「라하이나 논」, 환상의 동물원을 떠도는 삶의 지향을 잃은 자들의 이야기인 「기린의 심장」 등 기발한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그만큼 빠르게 읽히는 편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 소설들에서는 불행은 사회적 약자나 강자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만, 상대적으로 강자는 불행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도드라진다.
17	너의 세상으로	조윤경	하빌리스	소설	2021.04.19	작사가 조윤경의 첫 소설. 평소 아름답고 웅장적이면서도 서사가 있는 가사로 아이돌 그룹들의 세계관을 음악에 자연스레 녹여 내는 작가의 이 책은 자전적 판타지 소설이다. 작사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극사실주의로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도, 별을 타고 내려와 현실감을 간단히 깨어 버린 '너'란 존재와의 케미스트리가 현실과 꿈, 상상의 경계를 오가며 유쾌하게 펼쳐진다. 작가가 직접 골라 엮은 열두 곡이 하나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와 연동시켜 놓은 책 속 QR코드를 활용하면 해당 곡을 들으며 책을 읽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해당 곡들에 대한 작사 후기도 수록해 음악에 관한 뒷이야기를 엿볼 수도 있다. 판타지 로맨스 마니아뿐 아니라 아이돌 그룹의 팬, 작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18	긴긴 밤	루리	문학동네	소설	2021.02.03	세상에 마지막 하나 남은 코뿔소가 된다면, 소중한 이를 다 잃고도 ‘마지막 하나 남은 존재’의 무게를 온 영혼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까? 친구의 마지막 부락을 들어주기 위해, 어린 생명이 마땅히 있어야 할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본 적도 없는 바다를 향해 가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 책은 지구상의 마지막 하나가 된 흰바위코뿔소 노드과 버려진 알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수 없는 긴긴밤을 함께하며,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영망인 발로도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게 한 것은, 잠이 오지 않는 길고 컴컴한 밤을 기어이 밝힌 것은, “더러운 웅덩이에도 뜨는 별” 같은 의지이고, 사랑이고, 연대이다. 수단에게서 시작된 이야기 <긴긴밤>은 “압도적인 감동의 힘”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엄숙함” “멸종되어 가는 코뿔소와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펭귄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낸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19	산책을 듣는 시간	정은	사계절	소설	2018.08.20	열아홉 수지는 소리를 듣지 못해도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수지만 아는 수화로 완벽한 대화가 가능했고, 상상 속에서 모든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공 와우 수술을 받게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진다. 완벽했던 청각의 세계에서 불완전한 소음의 세계로 옮겨진 수지는 낯선 세상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한다. 눈이나 귀가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수지를 통해 독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작가는 개성 있는 캐릭터와 경쾌한 유머 요소를 자연스럽게 섞어 놓아 가족의 부재와 장애 등 무거울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어둡지 않게 다뤘다. 소리는 듣지 못해도 다른 청소년처럼 미래를 고민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는 평범한 십 대 소녀의 감성을 섬세하게 그려 내 독자들은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아까워 쉽게 된다.
20	눈으로 만든 사람	최은미	문학동네	소설	2021.06.11	「여기 우리 마주」와 「눈으로 만든 사람」을 비롯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쓰인 아홉 편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 십대 소녀부터 유자녀 기혼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번 소설집은 우리가 이들에 대해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멀리 비껴남으로써 무엇도 고정되지 않았기에 어디로도 갈 수 있는 해방의 파토스를 이끌어낸다.
21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김기창	민음사	소설	2021.04.02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오늘날 전 인류의 핵심 과제로 손꼽히는 기후변화를 테마로 쓴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 이상 기후에서 촉발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변화를 사실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그린다. 기록적인 폭염, 급증하는 태풍, 이상 고온 현상,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 반 년 가까이 지속되며 숲 면적의 14퍼센트를 태운 호주 산불… 몇 년 사이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하고 찾아지는 양상으로 우리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얼음 나라의 복극공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자 지금 당장의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막막하고 절실한 질문에서 소설은 시작되었다.
22	곁에 있다는 것	김종미	창비	소설	2021.03.26	10대 여성 청소년 지우, 강이, 여울이를 중심으로 할머니, 어머니, 딸로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생의 연연을 그려,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굵이들을 살아 낸 평범한 이웃의 삶에 존경을 전한다. 나날이 극심해지는 반부 격차, 위험에 내몰리는 비정규직 청년들의 노동 환경 등 지금 이 순간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직시하며 연대와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간구한다. 고3을 맞은 지우에게는 은강방직 투쟁을 이끈 해고 노동자였던 이모할머니의 삶을 소설로 남기겠다는 꿈이 있다. 은강방직에서 일하던 엄마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뒤 외할머니와 살아가는 강이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호조무사를 꿈꾼다. 여울이는 가난한 은강이라는 도시에 서 벗어나기 위해 교대에 진학하고자 입시에 매달린다. 각자 가장 환경도, 꿈도 다르지만 세 친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은강구를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침해하는 '폭방 체험관'을 추진한다.
23	고고심령학자	배명훈	북하우스	소설	2017.08.18	소설 속 고고심령학자들이 연구하는 '고고심령학'이라는 학문은 고고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심령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역사 연구의 끊어진 고리를 연결해주는 학문이다. 서사를 끌어가는 주인공은 돌아가신 스승의 서재를 정리하며 한국고고심령학계를 대표했던 스승의 연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하던 젊은 고고심령학자 조은수다. 미래가 불투명한 고고심령학도로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 갑자기 출몰한 높이 삼십 미터 이상 되는 검은 성벽의 출현을 목도한다. 성벽의 출현은 그 후에도 몇 차례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원인불명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비현실적인 목격담들도 쏟아진다. 이득고 도성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빈번한 성벽 출현이 일종의 '심령현상'이라고 생각한 조은수는 그 비밀을 풀기 위한 단서를 스승의 서재에서 찾아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과 가까워질수록 전말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이야기, 그리하여 그 자체가 대재앙의 기록인 고문헌들과 마주치게 된다.
24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안희연	창비	시	2020.07.24	2012년 등단한 이후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쳐온 안희연 시인의 세번째 시집.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부치는 '304 낭독회'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중적으로 친숙한 시인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더욱 깊어진 지적 사유와 섬세한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서정과 감성의 다채로운 시세계를 선보인다. 삶의 바닥을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헤아리는 '깨달음의 우화'와 같은'(이제니, 추천사) 뜨겁고 간절한 시편들이 공감을 자아내며 가슴을 깊이 울린다. '2020 오늘의 시' 수상작 '스페어'를 비롯하여 57편의 시를 3부로 나누어 실었다.
25	무슨 심부름을 가는 길이니	김행숙	문학과 지성사	시	2020.07.22	2020년 올해로 데뷔 21년 차를 맞는 김행숙의 여섯번째 시집. 그녀는 유연하고 변주되는 형상들의 세계, '녹아내리는 얼굴'과 '반사되는 메아리'에 집중해온 시인이기도 하다. 온전히 완성될 수도, 완벽히 새로운 수도 없는 불가능한 글쓰기의 숙명을 마주한 채 '진정한 말의 가능성'을 끈질기게 모색해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심부름꾼 k가 내놓은 이야기들'로 자신의 고인을 구제화해낸다. 카프카, 고대, 배수아, 기형도 등의 여러 텍스트가 김행숙의 시 속에 직접 들어온 듯하지만, 마치 시인의 기억 바구니에 담겨 한참 동안 깨지고 번져나간 듯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모해 천연덕스럽게 전개된다. "가짜에 가짜가 거듭 반사되는 거짓말의 세계"이지만, 그것이 "우리 세계의 진짜 모습"(문학평론가 박솔기)임을 보여주는 시인. '문학'이라는 수수께끼를 앞에 놓고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질문을 증폭시킴으로써 시를 밀고 나가는 김행숙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낯선 이야기를 잔뜩 들고 심부름에서 돌아오는 길이다.
26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김민정	문학과 지성사	시	2019.12.10	사랑받는 시인이자 성공한 편집자. 김민정 시인 마흔네 살의 겨울, 마흔네 편의 시가 담긴 네번째 시집 <너의 거기는 작고 나의 여기는 커서 우리들은 헤어지는 중입니다>를 묶어낸 그녀. 시인의 씬을 향한 열망은 강렬했고, 시는 그녀를 살게 했다. '시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수식은 시인과 오래 함께했다. 데뷔작에서부터 시인이 끈질기게 질문해온 시와 언어. 단단했던 관습의 벽을 유연하게 늘려내고 우리가 외면해온 세계에 언어를 부여하는 김민정의 이번 시집에서는 여전히 그녀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시인으로서의 의지, 소명이 엿보인다.

27	우주적인 안녕	하재연	문학과 지성사	시	2019. 04. 24	처음 만났을 때도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쓸 수 있는 단어 “ 안녕”. 시인이 건넨 것은 시작의 인사일까, 끝맺음의 인사일까. 끝과 시작을 일렬로 배열해내는 시라면 이 물음에 적절한 답을 구하기는 쉬워 보인다. 하지만 하재연의 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형적 시공간 개념을 똑똑 끊어내고, 그 사이에 벌어진 틈 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뒤섞는다. 이 세계에서 “ 안녕”을 우리가 본래 알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재연이 건넨 “ 안녕”은 전혀 다른 의미들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단어로 작용한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확장성의 세계, ∞으로 시작해 다시 ∞으로 끝나는 하재연의 인사, ‘ 우주적인 안녕’을 당신에게 건넨다.
28	날개 환상통	김혜순	문학과 지성사	시	2019. 03. 31	김혜순에게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뜨고 지면서 커지고 줄어드는 달처럼 죽고 사는 자신의 정체성” 보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여성의 몸은 무한대의 프랙털 도형”이라 했던 시인은 자신의 시가 “프랙털 도형처럼 세상 속에 몸담고 세상을 읽는 방법을 가지길 바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몸하는’ 시를 쓰고, ‘시하며’ 40년을 걸어왔다. 김혜순의 시집을 관통하는 “고유의 실존적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 실존의 실체는 ‘늘 순환하는, 그러나 같은 도형은 절대로 그리지 않는’ 파동”이라고 설파한 이는 11년 전, 김혜순의 아홉번째 시집 <당신의 첫>의 해설을 쓴 평론가 이광호였다. 이번 시집에서 다시 한번 해설을 쓴 이광호는 김혜순이 문학 제도 안에서 시를 쓰기 시작한 1979년 이후, 지난 40년간의 한국 문학의 변화를 살핀다. 그리고 1980년대의 급진적인 도전들과 1990년대의 다른 감수성의 등장, 그리고 최근 페미니즘의 요동치는 시간들에 이르기까지, 김혜순의 시는 그 국면들을 훑고 돌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짚어낸다.
29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	김이들	현대문학	시	2019. 08. 31	거침없고 솔직한 언어로 자신만의 독특한 활력이 살아 숨 쉬는 시세계를 구축해온 김이들 시인의 소시집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은 산문시의 형식을 고수하면서도 “ 여전히 순도 높은 서정성을 놓치지 않고” 자유스러운 화법을 구사하는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그동안 다져온 시세계를 더욱 확장시킨다.
30	퀼트, 그리고 퀼트	주민현	문학동네	시	2020. 03. 10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역동성이 있고 의욕이 넘친다"는 평을 받으며 2017년 등단한 주민현 시인의 첫 시집을 선보인다. 오래 겪고 오래 응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로 정치하게 꼭꼭 눌러선 55편의 시를 4부 - 1부 우리는 계속 사랑인 척한다, 2부 이곳의 이웃들은 방장이 없는 것 같아, 3부 곁을 고는 사람을 코만 남는 것처럼, 4부 사랑은 있었지, 쥐들이 사는 창문에도 - 로 나눠 담았다.
31	배틀그라운드	문보영	현대문학	시	2019. 08. 31	문보영 시집 『배틀그라운드』. 2016년 등단한 이후 최단 기간에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을 더해 화제를 모았던 문보영의 두 번째 시집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온라인 게임 속의 섬을 문학적 무대로 재탄생시켰다.
32	사랑을 위한 되풀이	황인찬	창비	시	2019. 11. 30	2010년 등단한 뒤 기존의 시적 전통을 일거에 허무는 개성적인 발성으로 평단은 물론이고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황인찬 시인의 세번째 시집. 4년 만에 펴내는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한결 투명해진 서정의 진수를 마음껏 펼쳐 보인다. 일상을 세심하게 응시하며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환기하는 “ 차가운 정념으로 비워낸 시”(김현, 추천사)들이 깊은 울림을 남긴다.
33	빛그물	최정례	창비	시	2020. 11. 13	최정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공간과 시간의 혼돈 속에서 시적인 물음들을 물으며 자기 갈 길을 가는 시들, 이곳을 말하면서 동시에 자국을 말하는 알레고리의 시들을 선보인다. 정밀한 이야기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언어와 냉철한 직관력으로 일상의 다채로운 풍경들을 담아낸 산문시의 새로운 경지와 묘미를 보여주는 이 시집에서 우리는 “ 어떠한 위기와 시련에도 손상되지 않는 인간의 신비” (김인환, 추천사)를 읽을 수 있다. 30년간 활발한 상상력과 고유의 어법으로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왔음에도 끊임없이 시적 모형을 실천하며 경신의 의지를 다져온 시인의 고투가 역력히 드러나는 시집이다.
34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김영사	에세이(인문/과학)	2020. 05. 30	수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한 어느 특수청소부의 에세이. 누군가 홀로 죽은 집, 쓰레기가 산처럼 쌓인 집, 오물이나 동물 사체로 가득한 집..., 험사리 볼 수도, 치울 수 없는 곳을 청소하는 특수청소업체 ‘하드웍스’ 대표 김완의 특별한 죽음 이야기. ‘특수’ 청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일터엔 남다른 사연이 가득하다.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를 한 사람, 자신의 시간을 청소하는 ‘비용’을 물은 뒤 자살한 사람 등. 현장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1장에는 픽션이라고 생각될 만큼 비현실적인 현실 이야기가 펼쳐지고, 2장에서 특수청소부로서 느낀 힘듦과 보람부터 직업병, 귀신에 대한 오컬트적인 이야기까지 다채로운 에피소드로 그가 하는 일을 생생히 전한다. 현장에 서 있는 듯한 간접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 특수청소부의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한다.
35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사계절	에세이(인문/과학)	2020. 11. 16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 어린이는 잘 보이지 않는다. 몸이 작아서이기도 하고, 목소리가 작아서이기도 하다. 양육이나 교육, 돌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곁에 어린이가 ‘ 있다’ 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다. 10년 남짓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했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는 김소영은 어린이의 존재를 더 잘 보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 왔다. 이 책에는 그녀가 어린이들과 만나며 발견한, 작고 약한 존재들이 분주하게 배우고 익히며 자라나는 세계가 담겨 있다. 이 세계의 어린이는 우리 곁의 어린이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통과해온 어린이이기도 하며, 동료 시민이자 다음 세대를 이루는 어린이이기도 하다. 어린이를 더 잘 이해해 보려는 노력은 나 자신을, 이웃을,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까지 살피려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지만 누구도 선뜻 중요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를 비로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6	사이보그가 되다	김초엽/김원영	사계절	에세이(인문/과학)	2021. 01. 15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 오늘날 ‘ 미래’ 라는 말을 채우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마치 그 미래는 인간의 몸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것만 같다.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채로 움직이는 세상, 첨단 기술을 동원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은 신체들이 이끌어가는 사회는 고통도 갈등도 불가능도 없는 편리하고 매끄러운 곳일까? 열다섯 살 전후로 신체의 손상을 보완하는 기계들(보정기와 휠체어)과 만나 ‘ 사이보그’ 로 살아온 김초엽과 김원영은 인간의 몸과 과학기술이 만나는 현장에 줄곧 관심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이 다양한 신체와 감각을 지닌 개인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전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각기 청각장애(김초엽)와 지체장애(김원영)를 지닌 채 살아온 시간과 장애인운동의 장단 안에서 키워온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장애라는 고유한 경험이 타자, 환경,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과학기술과 결합할 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다른 내일을 제시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오랜 문제의식을 멀리, 또 깊숙이 밀고 나아가 이 세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든 위계와 정상성 규범 너머에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환대할 미래를 그린다.

37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이길보라	문학동네	에세이(인문/과학)	2020.08.18	독립 다큐멘터리영화 감독이자 '로드스쿨러road schooler' 이길보라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유학생활을 통해 새롭게 얻은 배움과 고민을 그만의 시선과 사유로 담아낸 산문이다. 사회의 기준이나 부모의 의지가 아닌 온전히 스스로 삶과 공부의 방향을 정하고, 또한 제 힘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로드스쿨러인 그가 전하는 암스테르담 유학기는 생생하고 예민하기에 아름다운 청년의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어느 유학 성공담이나 외국 문화 체험기와는 다른 이유다. 책 속에 담긴, 자신의 삶과 예술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인디펜던트' 여성 청년의 '길 위에서의 공부'는 세상을 살아가고 맞서나가는 또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섬세하고도 유쾌하게 보여준다.
38	그냥, 사람	홍은전	봄날의 책	에세이(인문/과학)	2020.09.25	홍은전이 노들야학을 그만두고 보낸 5년의 시작이고도 공작인 기록이다, 라고 아주 평범하게 요약할 수 있는 책이다. 어쩌면 노들야학의 20년을 기록한 책 <노란 들뜬 꿈>에 이어 나온 그의 두 번째 책이자 첫 번째 칼럼집이라고도 쉽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자 홍은전의 극적인(!) 변화, 반면 거의 변하지 않은(어쩌면 오히려 퇴보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려한다면,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존재들의 삶(특히 '고통'과 '저항')을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격렬하고, 가장 서정적으로 옮겨 적은 기록이다, 고 부를 수도 있다. 거기에 담긴 홍은전의 마음은 아주 작은 존재들에, 그래서 더 소중한 존재들에 뜨겁게 온몸으로 반응하는 다정한 작가의 마음에 다름 아니다.
39	식물의 책	이소영	책읽는 수요일	에세이(인문/과학)	2019.10.25	공원, 가로수, 정원은 물론이고,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뜻하는 '플랜테리어'라는 용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식물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곁에 있는 식물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국립수목원·농촌진흥청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업해 식물학 그림을 그리며 식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해온 이소영 식물세밀화가가 소나무, 은행나무, 개나리, 몬스테라, 딸기 등 늘 가까이에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도시식물들에 관한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를 세밀화와 함께 담았다. * 책 본문의 작은 갈색 열록들은 고서적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한 무늬입니다.
40	사람의 자리	전치형	이음	에세이(인문/과학)	2019.04.21	2017년 11월, 제주의 한 공장 현장실습생이었던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 씨는 혼자 일하다가 제품 제작기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가 관리자에게 보낸 “한 명 더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는 노동 현장의 비정함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회자되었다. 저자인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사회의 비극을 본다. 이 씨의 메시지를 로봇과 자동 기계 시스템 속 무참하게 쪼아진 사람의 자리에서 터져 나온 비명으로 듣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누구의 책임인가? 맹목적인 무지한 관리자의 책임인가, 인력을 대폭 줄인 공장주의 책임인가,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했던 정부기관의 책임인가? 많은 사람들이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자본가를 비난할 때 저자는 낯익은 무겁게, 그리고 다르게 묻는다. 과학은 이런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라고 말이다.
41	앞으로 올 사랑	정혜윤	위고	에세이(인문/과학)	2020.12.05	「데카메론」의 형식을 빌려 열 가지 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지구 온난화 시대의 대화소설”인 마거릿 애트우드의 미친 아담 3부작, 샬랭이의 잊을 수 없는 운명을 그려낸 루이시 세폴베타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잔인한 공장식 축산과 유전자 조작 식물에 관해 폭로한 미셸 오웰 백의 「세로토닌」, 고독한 노동 한가운데에서 잠시나마 함께 있는 일의 온기를 느낄 있는 순수한 시간에 관한 존 버처의 이야기, 히틀러의 부대로부터 식물 종자를 지닌 바빌로프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는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잘못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나아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인지 ‘알아차리게’ 해준다. 저자는 말한다. “상상해볼 적 없는 거대한 단절의 시기인 지금, 이 균열 속에서 좋은 무엇인가가 나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리석음은 꽃피고 나쁜 일은 벌어진다.”
42	중공업가족의 유토피아	양승훈	오월의 봄	에세이(인문/과학)	2019.01.24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조선산업 전반의 문제에 대해 활발히 글을 써온 저자가 조선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 그리고 그 근거지인 거제도도 조선소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했다. 20년 가까이 호황을 구가하던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2015년 대우 조선의 경영난을 기점으로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조선업이 지금의 위기를 계기 삼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는 관점하에,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삶과 문화를 상세히 조망했다. 위기의 원인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역사 속에서 상세히 분석하면서도, 조선소 근무 경험을 살려 실제 현장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전달하고자 했다. 조선소의 상징과도 같은 ‘귀족 노조’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 가족’ 이외에도 하청업체 노동자, 사무보조직 여성, 조선소 취업을 앞둔 여고생, 조선소의 오랜 관습에 반기를 든 젊은 엔지니어, 여성 엔지니어 등 그간 주목받지 못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두루 살핍으로써 위기의 본질을 고민한다.
43	BTS 길 위에서	홍석경	ஏ크로스	에세이(인문/과학)	2020.11.22	세계 대중문화의 변방에서 탄생해 끊임없이 성장하며 자신들의 서사를 써나가는 아티스트 BTS. 국내에서 손꼽히는 한류 연구자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가 그 성공의 비밀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국 도로서는 이례적으로 출산 전부터 일본, 중국 등 세계 유수의 출판사에서 판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이 책은 한류와 케이팝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창의적으로 넘어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문화 상품으로 떠오른 BTS를 문화산업적, 사회적, 미디어적 관점에서 전방위로 분석한다.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대중문화 형성·전파의 대표적 사례로서 BTS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그들이 열어젖힌 새로운 세대·문화·인종·젠더의 경험은 세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화 매개자들의 권력이 어떻게 재배치되고 새로운 문화 생산과 향유의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전문가적 견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절묘하게 결합해 전한다.
44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	김혜령	가나	에세이(인문/과학)	2020.07.03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穩하지 못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마음 돌봄의 기술’을 전하는 책이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제로 고민한다. 타인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지만 SNS로 인해 우리는 눈 뜨는 순간부터 장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매일매일 접하며 지낸다. 비교가 일상이 되었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만큼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은 채 쫓기듯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타인을 활취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대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기도 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듯 보이는 타인의 모습에 주눅 들어 자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힘을 내보자 다짐해도 내 의지와 달리 자꾸만 흔들리고 쪼그라드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진다. 그러곤 이런 말을 한다. “내 마음대로 제일 안 되는 게 내 마음인 거 같다”라고.
45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	김영사	에세이(인문/과학)	2020.9.25	질량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빛도 물질인가? 자석은 왜 자석인가? 왜 어떤 물질은 전기를 통하고 다른 물질은 그렇지 못하는가? 2차원, 1차원 물질도 있는가? 도대체 ‘물질’이란 무엇인가? 《물질의 물리학》은 물리학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탐구해가는 과정에서 발견된 그래핀, 초전도체, 양자 홀 물질, 위상 물질 등 기묘한 물질들의 세계를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독창적인 비유로 직관적이고도 자세하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인 한정훈 박사는 여러 차례 대중 강연을 하고 해설을 기고하면서, 제한된 시간과 지면에 답답함을 느껴 좀 더 긴 호흡으로 ‘물질’에 대해 대중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책을 구상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의 4원소설에서부터 양자과학 시대의 위상 물질에 이르는 ‘물질’의 역사를 물리학자들의 삶과 당시의 시대 배경, 자신의 경험을 세심하고 날카로워 엮어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

46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	서윤후	바다출판사	에세이(인문/과학)	2021.05.31	스무 살에 등단해 '20대'라는 인생의 시기를 온전히 시 쓰는 삶으로 살아낸 시인 서윤후의 자기 삶에 대한 차분한 애정을 뽐내듯 담은 산문집. 삶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그만두기로 작정한 일들과 그 과정을 담은 기록으로 이를 통해 그는 일상의 여백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그만둘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은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릴 때마다 재평가되고, 그는 자신의 생활을 지탱해온 일들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목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완벽한 계획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유연하게 돌볼 수 있는 탄력성을 더해주는 일임을 깨우친다. 그가 <그만두길 잘한 것들의 목록>을 통해 생활의 균형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오늘날도 내일을 잘 살아내고 싶은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47	따님이기가 세요	하말님맘	포르체	에세이(인문/과학)	2021.05.20	구독자 16.5만 명, 누적 조회 수 830만 회에 달하는 여성 미디어 유튜브 채널 '하말님맘'을 운영하는 강민지와 서술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벗어던지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어릴 때부터 하말님맘이 될 싹을 보이며 자란 두 사람이 페미니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일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한 흔적까지도 유쾌하게 전한다. 결혼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혼을 선언한 여성으로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 말한다. 집을 구할 때는 불리한 조건으로 신혼부부와 경쟁해야 하며 훗날 나의 결혼식을 위해 축의금을 냈을 부모님에 대한 부담을 마음 한편에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하되,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디뎠던 발걸음을 보여준다.
48	공간의 미래	유현준	을유출판사	에세이(인문/과학)	2021.04.25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 안에 사는 인간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서 공간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고, 나아가던 방향도 조금 틀어졌다. 이 책은 집, 회사, 학교, 상업 시설, 공원, 지방 도시, 물류 터널 등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가까운 미래를 살펴본다. 인간은 늘 세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한다. 지금까지 큰 변화를 맞이했을 때에는 그런 요구가 더 늘 수밖에 없고, 그에 맞춰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건축가로서 앞으로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지 예측하려 시도했고, 이 책은 그 추측의 산물이다. 당연히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이 책의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 올바른 예측을 하고, 나아가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9	내가 누구인지 뉴턴에게 물었다 (부제: 물리학으로 나,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 법)	김범준	21세기북스	에세이(인문/과학)	2021.03.24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의 신간『내가 누구인지 뉴턴에게 물었다』는 물리학의 시선을 통해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계, 나아가 미래의 삶까지 탐구하는 책이다. 거대한 우주 속의 먼지 같은 나를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은 나의 바깥을 바라본다. 복잡한 이론과 어려운 공식이 아닌, 일상 속 사소한 궁금증, 인간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물리학을 쉽게 배우는 책이다. 우주, 시간, 원자, 엔트로피 등 어렵게만 느꼈던 물리학을 쉽게 배우고, 삶의 의미까지 발견하는 따뜻한 물리학 특강이 펼쳐진다.
50	수학, 생각의 기술	박종하	김영사	에세이(인문/과학)	2015.04.27	수학의 본능은 생각, 지금까지 몰랐던 수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다! 입사 시험, 영재의 발굴, TV 예능과 게임에서도 이제는 수학적 사고력을 말한다. 수학의 진짜 모습 '생각'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수학, 생각의 기술>에서는 왜곡되었던 수학의 재미를 일깨우는 다양한 생각 실험을 소개한다. 수학적 생각을 검증하고, 폭발시킬 130여 개의 생각 실험과 질문, 수학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다양하고 방대한 생각 실험과 정답을 향하는 풀이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창의력과 논리력 등 수학적 사고력이 자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학에 익숙해진다.
51	팀장의 말투	김범준	센시오	에세이(인문/과학)	2021.04.05	회사에서 일하다 사람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팀장(상사)이 부하직원 때문에 빠지는 경우와 직원이 팀장 때문에 빠지는 경우. 팀장이 빠지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한때 직원이 팀장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사실상 한 가지다. 팀장의 말투다. 팀장 혼자 모든 걸 할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떤 말투를 못 참는지 알아야 한다. 존경까지는 됐고, 팀장으로 인정이라도 받고 싶다면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장이 하는 모든 행동, 팀원과 목표를 공유하고, 팀원 성향에 맞는 일을 맡기고, 동기를 유발하고, 회사에 지원을 요정하는... 이 모든 것이 팀장의 말투에 따라 상황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말투는 팀장이 가져야 할 가장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킬이다. 팀원이 바뀌길 기다리지 말자. 팀장의 상사가 바뀌길 기다리지 말자.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뀐다. 그러나 내 말투부터 바뀌보자. 상황별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안 할 이유도 없다.
52	N잡러의 돈은 잠들지 않는다	여도은	넥서스덤	에세이(인문/과학)	2021.05.25	퇴근 후 취미를 즐기고, 나아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자라는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다면? 게다가 그것들이 경제적 자유까지 가져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삶이 될 것이다. 여행으로도 쇼핑으로도 당신의 답답함을 해소시키지 못 했다면 이제 다양한 '부캐'로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보자.
53	기억과 기록 사이	이창재	돌베개	에세이(인문/과학)	2020.01.28	컬럼비아대학출판부 25년 차 북 디자이너가 읽은 책과 만든 책에 관한 에세이다. 지은이는 네 살 때 처음 책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독서로 자신의 세상을 구축하고, 20여 년간 북 디자이너로 생계를 꾸리며 책을 삶처럼 여겨왔다. 『기억과 기록 사이』는 책을 매개로 한 사유와 기억을 찬찬히 담아내고 있으며, 다루는 책의 목록에서 지은이의 일관된 눈썹미와 정서가 느껴진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책과 관련한 일을 한 전문인의 기록인 동시에, 모국어를 잃지 않은 디아스포라의 책에 대한 동경과 헌사이고, 이민자이자 바이링구얼의 책을 통한 교차적 문화 읽기이며 장소와 시대에 관한 감각이 깃든 산문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마주한 기쁨과 고통, 관계와 단절, 소망의 실현과 좌절 등 독자가 일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민자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애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으며, 아시아권 문화 교류의 일면도 만날 수 있다. 사진 勞曉天 Noh Suintag, 安玉鉉 Ahn Ok Hyun
54	돼지를 키운 채식주의자	이동호	창비	에세이(인문/과학)	2021.06.01	전직 군인이자 여행 작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저자는 스물여덟이라는 젊은 나이에 농촌으로 이주한다. 귀촌 후 축산 동물과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목격한 저자는 채식을 시작하지만 여러의문이 뒤따른다. 인간은 잡식동물로 태어났는데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 동물을 학대하는 축산 방식이 문제라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란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쩌면 그게 '자연의 섭리' 아닐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품고 마당에서 돼지 세마리를 직접 키워보기로 한다. 긴박감 넘치는 돼지 사육 현장부터 외면하고 싶은 돼지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이 책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인간은 다른 생명을 위해 먹고 산다. 저자는 마당에서 돼지를 기르며 우리가 먹는 생명의 고귀함과 자연의 아름다운 순환을 배우고, 동물을 키우고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한다. 나아가 값싼 고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의 실태, 대규모 축산이 야기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고민을 확장한다.

55	분더카머	윤경희	문학과 지성사	에세이(인문 /과학)	2021. 05. 3 1	저자는 ‘ 경이로운 방’이라는 뜻을 지닌 분더카머Wunder kammer, 즉 근대 초기 유럽의 지배층과 학자들이 자신의 자택에 온갖 진귀한 사물들을 수집하여 진열했던 실내 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출발하여, 우리들 각자의 머릿속 내밀한 분더카머로 시선을 돌려 빛바랜 이미지와 기억과 텍스트들을 소환해낸다. 어린 시절 창밖으로 바라보던 풍경, 첫 소풍날의 보물찾기, 어머니의 뜨개질, 친척집을 순회하며 받았던 벽장의 모험, 이름 없는 독일 빵집의 냄새, 검은 숲 슈바르츠발트의 어둠, 누군가의 비석 위에 놓인 돌, 해석 불가능한 꿈들, 라블레의 허풍, 발터 벤야민의 채스 두는 인형, 롤랑 바르트의 동어반복, 그리고 각종 그림과 음악, 선물로서의 시들... 현재의 욕망과 불안의 근원에 다가가는 열망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솟아오르고 조형된다.
56	멋있으면 다 언니	황선우	이봄	에세이(인문 /과학)	2021. 05. 1 7	나이와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김유라, 김보라, 이슬아, 장혜영, 손얼음, 전주연, 자아, 재재, 이수정 등, 9명의 여성들을 만났다. 그리고 살아 있는 대화로 구성된 생생한 삶의 이야기인 인터뷰라는 방식을 통해 2020년대 한국 여성의 역사를 기록했다. 이 인터뷰집에는 9명의 빛나는 성취만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했던 실패와 실수, 현재 느끼는 불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응원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종종 실패한다. 그들처럼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 성공한 사람들은 무용당으로써 실패는 공유해도, 불안과 자기 불확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인터뷰가 갖는 의미는 또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리스펙트하는 9명의 여성들이 기꺼이 자신의 불안과 불확신을 당신 앞에 드러냈다는 것.
57	예술의 주름들	나희덕	마음산 책	에세이(인문 /과학)	2021. 04. 3 0	시인 나희덕의 예술 산문 <예술의 주름들>은 예술 작품이 시가 되기 이전, 시인이 작품을 마주한 순간의 감흥과 해석이 산문의 언어로 펼쳐지는 장이다. 아녜스 바르다, 루이치 사카모토, 케테 콜비츠, 로스코, 조동진 등 책 속에 호명된 예술가들은 장르도 개성도 각기 다르지만, 시인이 ‘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나희덕의 시적 자아와 비평적 자아가 동시에 작동하며 쓰인 30편의 글들은 특유의 공감력과 사유를 통해 예술 작품 앞에서 우리가 느꼈던 미묘한 감정을 해아리게 한다. 거미가 가느다란 씨줄과 날줄을 뽐내듯 시인이 언어로 직조해낸 풍경은 독자들의 감각을 일깨우며, 예술의 숨겨진 ‘ 주름’으로 이끄는 것이다. 무엇보다 예술의 세계에서 깊어 올린 메시지와 태도- 자연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감수성(1부), 여성주의 정체성 탐색(2부), 예술가적 자의식의 탐구(3부), 장르의 경계를 흔드는 실험(4부), 시와 다른 예술의 만남(5부)-는 지금, 여기 우리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할 통찰로 가득하다.
58	가난의 문법	소준철	푸른숲	에세이(인문 /과학)	2020. 11. 3 0	도시연구자 소준철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묶었다. 저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여성 도시 노인의 생애사적 특징과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일을 통해 가난을 들여다본다. 그들은 어떠한 가난의 경로를 거쳐왔는가? 분기점에서 한 어떤 선택이 그들을 가난으로 이끌었는가? 그들이 살아온 삶, 재활용품 수집을 시작한 이유, 수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쟁, 노인들의 지역공동체를 들여다보며 가난의 구조를 배운다. 그 구조는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59	5번 레인	은소울	문학동네	아동/청소년	2020. 09. 1 4	열세 살 수영부 아이들의 고락을 담은 이야기로 아동 문학에서 흔치 않은 스포츠물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수영이라는 소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성장'이라는 주제를 그리고 있다. 강나루, 열세 살, 주 종목은 자유형, 전국소년체전에서 메달을 척척 따내는, 명실상부한 한강초수영부의 에이스다. 나루는 기록 0.1초를 단축하기 위해 학교 수영장을 100바퀴 더 돌고, 수업 시간에 꿈을 말할 때면 망설임 없이 울렁픽 메달을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수영을 왜 하느냐는 질문을 던져 본 적은 없다. 늘 당연한 듯 물에 뛰어들었고 우습게 팔을 휘둘렀다. 갑작스러운 라이벌의 등장과 함께 혼란에 빠지는 나루. 누구보다 치열하게 물을 헤치며 전력을 다해 왔던 나루는 자신의 몸방울 앞에서 땀땀해지기 위해, 물 밖으로 도망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과 정면으로 마주한다. 자신의 실수를 하나하나 되짚은 후, 앞으로 나아가는 나루의 모습이 묵직한 감동을 준다.
60	광 없는 뽀기 기계	곽유진	비룡소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3. 0 1	어느 문구점 앞에 놓인 ‘ 뽀’ 없는 뽀기 기계를 매개로 일어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담은 판타지 동화다. 슬픔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한 아이가 뽀 없는 뽀기 기계를 통해 한 발 한 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재구성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야기를 담담하고도 가슴 뭉클하게 그려 낸 작품이다. 오백 원짜리 동전을 넣고 돌렸을 때 뽀 없이 무엇이든 나오는 뽀기 기계가 있다는 독특한 설정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인다. 주인공 희수가 왜 뽀기를 싫어하게 됐는지, 희수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어떤 것인지 의문으로 돈 채 흘러가는 서사는 뽀기 기계에서 뽀 없이 나오는 환상적인 물건과 만나 예상치 못한 반전을 거듭하며 이야기를 이끈다.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뒤, 이야기에서 상징하는 바를 깨달았을 때의 울컥함은 따뜻하고 서정적인 차상미 화가의 그림과 만나 여운을 더한다. 저학년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문학적 성취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61	지금은 여행 중	김우주	창비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5. 0 1	2017년 작품 활동을 시작한 김우주의 첫 동화집이다. 교실, 택시, 공항, 슈퍼 등을 무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일곱 편의 동화를 묶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린이들이 소외당하는 문제점을 꼬집으며 현실을 냉철하게 뒤집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작가의 역량이 만득스럽다.
62	미장이	이명환	한솔수 북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6. 1 7	새벽녘, 잠든 아이들을 위로 하고 집을 나서는 아빠, 한 번도 깨어서 배웅한 적 없지만 아빠는 가족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묵묵함과 성실함으로 일구어 주셨다. 그 곁에는 조용히 빈자리를 메워 주던 엄마가 있었다. 아빠가 한 달씩 일을 하고 올 때면 조기를 사들고 왔고, 일을 갈 때면 잠든 아이들을 남겨 두고 조용히 집을 나서곤 했다. 아빠가 건물 밖에 쭉쭉 회반죽을 바르고 타일을 붙이는 동안, '나'는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 아빠가 곁에 없어도 아빠의 작품들은 우리 가족이 가는 곳곳에 함께 있었다. 덕분에 나는 가슴을 짝 짝 수 있었다. 이 책 속에는 가족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는 아빠와 아이들 곁에서 조용히 삶을 꾸리는 엄마, 눈 가는 곳곳에서 아빠의 흔적을 찾아내며 그리움을 삭이는 '나' 모습이 담겨 있다.
63	우리는 안녕	박준	난다	아동/청소년 (동화)	2021. 03. 2 0	첫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와 첫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을 쓴 시인 박준의 첫 시 그림책이다. 서양화가 김한나 작가와 함께했다. 시인의 아버지가 키우는 개 '단비'를 주인공으로 하는 시 그림책이다. 시인의 두번째 시집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까>속 '단비'라는 시를 읽고 보면 더 풍요로워진다. 그런 사연을 품고 사는 단비에게 어느 날 날아든 새가 있어 그 새와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저마다의 '안녕'을 되새겨보게 하는 시 그림책이다.
64	이파라파 나무나무	이지은	사계절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6. 1 0	마시멜로가 사는 평화로운 마을. 풍요로운 먹거리와 폭신한 땅, 느긋해서 잠이 솔솔 올 것만 같은 마을의 동산 너머로 어느 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이파라파나무나무... 이파라파나무나무.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고,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산만 한 덩치에 시커먼 털복숭이가 도사리고 있다. 이쯤 되면 제아무리 느긋한 마시멜로들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데, 대체 저 소리는 뭘까? 나무나무? 뉘뉘? 잠아먹겠다는 말인가? 2021년 볼로냐아동도서전 유아·코믹 부문 대상 수상작

65	엄청난 눈	박현민	달 그림	아동/청소년 (동화)	2020. 11. 27	흰 여백이 주를 이루는 책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눈으로 바꾸어 상상했을 때 엄청난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책이 된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책 너머의 이미지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쇄에서는 흰색 잉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흰 종이기가 눈이 되고, 눈사람이 된다.
66	물이 되는 꿈	루시드폴 글, 이수지 그림	청어람 아이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5. 07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노래 '물이 되는 꿈'이 그림책으로 탄생했다. 가수 루시드 폴의 한 편의 시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이수지의 그림과 만나 더욱 깊어졌다. 한차면서 잔잔하고, 강하면서 유연한 물의 이미지를 수채화로 섬세하고 강렬하게 표현했다. 그동안 이수지의 그림책에 등장했던 '파랑'과 '물'의 표현이 가장 두드러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본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노래를 들으며 책장을 넘기면 눈으로만 볼 때와는 또 다른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물이 되는 꿈>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반갑다. 노랫말이 멋진 그림이 되어 펼쳐지는 특별한 그림책으로 아이와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67	맛있는 건 맛있어	김양미 글, 김효은 그림	시공주 니어	아동/청소년 (동화)	2019. 12. 05	이 작품은 주인공 아이의 시각적 흐름과 의식의 흐름이 자유롭게 서술된 '맛'의 이야기이자, 아이의 성장 앨범이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의 소소한 관찰로 시작한다. 새는 감을 쪼아 먹고, 고양이 아노는 오이를 찹처 먹는다. 엄마는 사랑초에게 물을 주지만, '나 선인장'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다. 어린 동생 연우는 뒤편 입으로 집어넣을 만큼 어리다. 오늘은 단추를 먹으려다 들켰다. 관찰은 아이의 상상을 자극한다. 스파게티는 몸 안에 길을 만들 것 같고, 레몬주스는 원피스를 노랗게 물들일 것만 같다. 피자 조각은 크리스마스트리 같고, 오빠가 눈 똥은 연지 맛있는 케이크 같다. 맛있는 음식은 음식의 이미지, 향, 색깔, 먹는 소리와 먹는 장소까지 어우러져 우리의 상상을 자극한다. 아이는 음식들을 보며 꼬리에 꼬리를 물듯 재밌는 상상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68	물개 할망	오미경 글, 이명애 그림	모래알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1. 30	해녀 그림책, 글작가 오미경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와 아일랜드 물개 설화를 연결지어 새로운 해녀 이야기를 만들었으며,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기 위해 할망의 대사에 제주어를 사용했다. 그림작가 이명애는 제주 해녀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그렸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 바다를 다채로운 이미지로 설득력 있게 표현했다. 덕분에 평생 거친 파도와 바람을 품고 살아온 제주 할망들의 강인한 삶과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69	사춘기 대 광년기	제성은, 이승연	개암나 무	아동/청소년 (동화)	2020. 02. 05	사춘기와 광년기를 지나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룬 작품이다. 모든 일을 엄마 탓으로 돌리는 '사춘기 법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딸 루나와 광년기라는 새로운 인생 굴곡을 만난 엄마의 이야기를 각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한 뼘 더 자라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감동적으로 그린다. 이 책의 저자 제성은 작가는 사춘기 딸과 대화를 하다 자신도 모르게 '너 사춘기니?'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자신이 사춘기 때 가장 듣기 싫어하던 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딸에게 내뱉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는 사춘기 딸을 좀 더 이해해 보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70	엄마 자판기	조경희	노란돼지	아동/청소년 (동화)	2019. 08. 30	신우네 엄마는 바쁘다.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만큼. 토요일도 일해야 하는 엄마 때문에 신우는 심심하기만 하다. 하지만 일을 하고 들어온 엄마는 신우에게 핸드폰만 한다고 혼을 내고, 얼른 씻으라고 재촉한다. 그런 엄마가 신우는 아속하기만 하다. 엄마가 너무 미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든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정말로 엄마가 보이지를 않는다. 여기저기 찾다가 엄마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엄마 자판기가 놓여 있었다. 자신을 놀려 달라고 하면서 말이다. 평소 엄마와 해 보고 싶었던 놀이를 모두 함께 해 볼 수 있는 자판기다. 자판기에서 나온 엄마들은 신우와 함께 피자 만들기, 공주 놀이, 공 놀이, 셀카 찍기 놀이 등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신우는 알게 된다. 엄마 자판기에서 나온 엄마들과 함께한 놀이가 전부 진짜 엄마와 했던 일이라는 것을. 엄마는 신우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그림책이다.
71	끼인날	김고은	천개의 바람	아동/청소년 (그림책)	2021. 04. 01	한 아이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하얀 개가 하얀 구름 사이에 끼어 있다. 아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강아지를 데리고 내려왔다. 다음 날에는 슈퍼 할머니의 주름살 사이에 모기가 주둥이가 끼어 울고 있었다. 아이는 삼금삼금 다가가 주름살을 벌려 모기를 구해 주었다. 그 다음 날에는 뽕을 구멍에 부리가 낀 빵권을 구해 준다. 그렇게 아이는 매일매일 쓰레기통에 낀 공, 아저씨 엉덩이 사이에 낀 스텝, 축구 골대 그물에 낀 대롱머리, 누런 방구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었다. 너무 지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와 아빠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엄마 아빠 사이에 싸움 요정이 끼어 있다. 과연 아이는 이 싸움 요정을 빼낼 수 있을까?
72	오늘은 진짜 진짜 혼자 잘거야	홍수영	웅진주 니어	아동/청소년 (그림책)	2021. 05. 26	혼자 자기에 도전한 아이가 느끼는 여러 감정을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이 책은 숫자 '열'까지 스스로 범위를 정해 아기가 수를 세는 형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신선한 이야기 구조를 자랑한다.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그리고 대망의 '열'이 다가오자 점점 어둡게 고조되는 색채감, 초롱초롱 빛나던 아기 토끼의 눈빛 변화 등 아이의 초조한 마음을 거칠고 앙증맞게 표현해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자연스레 인정하고 다독인다. 마침내 '열'의 외침과 함께 "엄마! 나 사실 엄마가 제일 필요해."라며 엄마에게 외락 안긴 아기가 토끼의 모습은, 어둠에 대한 무서움, 혼자 잠을 청하는 아이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실제 아이들이 느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돕는다. 자신감, 기대감,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까지 아이들이 느끼는 여러 감정을 균형 있게 그린 이 책은, 잠자리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고충과 감정을 속 시원하게 전한다.
73	이세린 가이드	김정연	코난북스	만화/그래픽 노블	2021. 02. 01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듯 사실적으로, 매력적으로 묘사된 음식 모형 제작자 이세린의 세계를 바탕에 깔고, 음식을 둘러싼 무궁무진한 이야기에 생생한 상상을 곁들여 그야말로 독특하면서도 잊음직한 한 세계를 한 권의 만화 안에 치밀하게 구축했다. 열다섯 가지 메뉴 하나하나마다 뒷맛을 만큼 광활하게 이어지는 이세린의 독백을 따라가다 보면, 과연 작가가 왜 음식을 주제로 택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리고 푸짐하게 잘 차린 이야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하고 손을 들고 싶을 만큼 공감하고 마는 것이다.
74	정년이	서이레 글, 나론 그림	문학동네	만화/그래픽 노블	2020. 4. 27 (1) 2020. 08. 31(2)	1956년, 목포, 시장에 울려 퍼지는 「남원산성」노랫소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짧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쏟아지는 환호. 가진 것, 배운 것 없지만 소리 하나는 타고난 정년은 서울에서 온 국극단의 무대를 볼 때면, 서울에만 가면 자신에게도 성공의 길이 열릴 것 같다. 하지만 정년의 어머니는 국극단을 '사탄 소굴'이라 부르며 그가 서울로 가기 위해 모아둔 돈을 가져가버린다. 자신의 재능과 꿈을 물려주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 정년. 어머니와 크게 다툰 길로 서울에 올라와 당대 최고의 여성국극단 '매란국극단'을 찾아간다. 그러나 자신감과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노래하던 정년에게 예술은 너무나 어렵고 생소한 세계. 모두에게 인정받는 실력에 노력까지 겸비한 연구생 허영서를 보고 있으면 넓은 세상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게다가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집단생활은 만만치 않고, 호랑이를 물렸던 자신을 도와줄 생각조차 없어 보이는데... 무엇 하나 쉬운 것 없는 넓은 세상. 그곳을 무대로 정년은 스타가, 새로운 '내'가 될 수 있을까?

75	까대기	이종철	보리	만화/그래픽 노블	2019. 05. 13	택배는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 뒤에는 고된 노동이 숨어 있다. 《까대기》는 일을 하면 하루 만에 도망치게 된다는 전설의 알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의 실상을 A부터 Z까지 담은 만화책이다. 만화가를 꿈꾸며 서울로 올라온 주인공 이바다는 택배 알바를 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간다. 《까대기》는 실제로 6년 동안 택배 일을 하며 만화를 그린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취재와 인터뷰로는 끌어낼 수 없는 생생한 택배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아 있다.
76	달에서 아침을	이수연	위즈덤 하우스	만화/그래픽 노블	2020. 08. 05	친구 관계에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사춘기 어린이 혹은 청소년의 예민하고 미묘한 감정들을 잘 잡아낸 섬세한 그림책이다. 용마를 당하는 토끼와 하나뿐인 친구이자 방관자인 곰의 이야기다. 토끼와 곰의 현실 이야기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환상적인 분위기가 교차 편집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폭력 문제가 길고양이를 향한 무차별 폭력 문제에 빚대어 그려지고 있다. 여러 층위의 이야기가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이 그림책의 화자는 놀랍게도 곰이다. 방관자 곰이 모르는 척하는 데 익숙한 세상의 모든 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77	흔한남매 과학 탐험 대	흔한남매	주니어 김영사	만화/그래픽 노블	2021. 05. 24	과학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과학의 주요 내용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초등 과학 입문서이다. 흔한남매가 최고의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우주, 지구, 우리 몸, 정글 등을 여행하며 쉽고 재미있게 과학 지식을 배운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담았고, 생활 과학 정보, 과학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 관련 정보들을 더했다. 언제나처럼 통통거리는 동네 숲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의문의 연구소. 으름리와 에이미는 그곳에 숨겨진 정체불명의 젤리를 먹고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 우주에 흩어져 있는 7개의 젤리를 모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에 남매는 연구원들과 함께 과학 탐험대를 결성한다. 하지만 지구 최고의 악당 간식단이 나타나 번번이 탐험대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78	B의 일기(전3권)	작가1	북로그 컴퍼니	만화/그래픽 노블	2021. 06. 25	《탈코일기》의 작가가 후속작 《B의 일기》를 출간했다. 《탈코일기》가 외형적 코르셋을 벗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B의 일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의 심리적·정신적 코르셋으로 작용해온 ‘결혼’ 문제, 정확하게는 ‘비혼’ 이야기를 다룬다. 흥미로운 것은 《탈코일기》의 후속작임에도 오히려 10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탈코르셋 이전의 ‘도수리’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도수리는 《탈코일기》의 세 주인공 중에서도 가장 확고한 자기철학을 갖추고 있던 인물이다. 이제 막 탈코르셋을 한 김범희와 코르셋을 놓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백로아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하는 정신적 멘토로 등장했던 도수리의 10년 전 모습은 어땠을까?